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과 학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사후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가 개발·보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들간의 관계성 증진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과와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보호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 대상 연수사업과 '학부모 소식지' 발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육주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완성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생의 주체적 활동 더하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 다 같이 함께 해요!

학생 추윤지

연세초등학교(6학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연세 서포터즈'대표

처음에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이라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교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소식지인 '울림'의 기사를 작성할 때도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며 학교폭력 예방이 얼마나 중요인지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인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학교폭력 예방에 보탬이 됐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UCC를 제작해서 전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자부심도 들었고, 친구들이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친구사랑 현수막 만들기>

학부모(보호자)의 어려움 함께 나누기(÷)



멈춰서 마음의 손 내밀어요.

학부모 박일순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자녀(아이)들은 '다가가기'를 배워야 할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녀(아이)들이 원만하게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환경과 학부모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피·가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억울하고 화가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지연시키고 상대방에게 정작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학부모(보호자)님들이 먼저 스스로 감정을 잘 절제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는 발달 특성상 순간적인 충동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줄이기(-)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 역량 UP!



교사 김태완

부산 명진초등학교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에 보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육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의 발달 특성에 따라 수준별로 사회·정서 역량 및 공동체성을 기르고,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 이후 학생들은 폭력과 장난의 경계를 구분하려 애쓰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위험을 주변에 알리는 적극적 방어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문화가 학급에서 확산되면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협동학습이나 모둠학습을 할 때 생각과 마음을 더 잘 모아 활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 활동>



학교장 자체해결제,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출발점

장학사 김정란
강원도교육청

언제부터인가 학교 내에서의 소소한 갈등과 다툼까지도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관한 법률」 안에서 쟁점을 다루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조심스럽고 학부모(보호자)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 마련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안에 대해 학교 내에서 당사자 간에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제도를 구조화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진정 어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직면하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 나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갈등은 더 이상 교실의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되고, 학교는 사법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교육력을 회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뜻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교수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보다 먼저 오래 간 폭력을 칭하는 불링(Bullying) 문제에 주목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년 중후반 '왕따'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며 학교폭력에 대한 본격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불링은 거의 모든 나라의 청소년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모든 주가 반(反)불링 법을 통과시켰으며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Policy)을 적용하고 있으나 무관용 원칙의 부작용 문제로 최근에는 회복적 정의와 사회적 역량 강화와 같은 치료 및 교육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전학교 접근(Whole-School Approach)을 강화해 부모 참여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운영 그룹을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모임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폭력 억제와 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식에서 개입과 협력의 대상을 학부모(보호자)까지 확대하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성의 근간이 되는 공감, 정서인식, 의사소통 능력 등은 모두 부모(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표현처럼 평소 자녀(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고, 감정을 헤아려주며 고운 말로 자녀(아이)를 키우면 그 자녀(아이)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보호자)의 양육방식이 자녀(아이)의 학교폭력 위험 요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 소식지 12월호 학교폭력 예방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 학교, 가정, 지역사회, 언론 및 기업이
해야 할 전사회적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소식지 vol.7호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26분들의 의견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정부

- 학교폭력 사안 및 예방교육 전문가 발굴 및 교육
- 교사와 학부모(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학교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집중 교육 및 상담
- 피·가해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적극적 상담 지원



가정

-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상 교육 이수
- 학부모(보호자) 어울림 프로그램 역량(공감, 의사소통, 감정 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증진



지역사회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폴리스 운영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공간(체험관) 조성



언론 및 기업

- 학교폭력 보도 권고 기준 마련 및 캠페인 활성화
-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협력체 구축 및 사회적 비용 지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및 성과보고회 개최

2022년 1월 27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및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학교, 교사 학습공동체, 학생 부문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와 학생 예방 활동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소식지 설문조사 이벤트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보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지로 찾아 보기 위해 2022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아래 QR코드에 답해주세요.

이벤트 참여기간

2022.1.7. ~ 2022.1.31.

| QR코드 링크 주소 |

<http://m.site.naver.com/0U9qW>



이벤트 참여하기